



쉬운정보



촉각정보

한눈에 보는 한강 이야기

한강, 이야기가 가득한 그곳으로



들어가는 글

우리나라가 있는 땅을 한반도라고 부릅니다.

한강은 한반도 가운데로 흐르는 크고 넓은 강입니다.

한반도에는 5천 년 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물과 자원이 풍부한 한강 주변에 모여 살았습니다.

한강 물길을 따라 많은 사람이 한강을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한강에서 다양한 물건을 사고팔고,

한강을 사이에 두고 적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 덕분에 한강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생겨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오랜 시간 함께 해 온 한강.

한강에는 어떤 이야기가 쌓여 왔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한강이 가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봅시다.

순서

	알아 두면 좋은 우리나라의 시대	4
한강, 얼마나 알고 있나요?	한강의 이름	9
	한강의 다리	11
	한강의 공원	13
한강과 사람 이야기	선사시대의 한강	17
	삼국시대의 한강 백제와 고구려	19
	삼국시대의 한강 신라	21
	조선시대의 한강 나루터와 포구	23
	조선시대의 한강 경강의 상인들	25
	조선시대의 한강 경교명승첩	27
	근현대의 한강	29
한강의 섬 이야기	뚝섬 독제를 지내는 섬	33
	잠실섬 물고기 길이 있는 섬	35
	여의도 너의 섬, 나의 섬	37
	밤섬 밤알을 닮은 섬	39
	난지도 난꽃과 지초가 많은 섬	41
	노들섬 백로가 놀던 섬	43
	선유도 신선이 놀던 섬	45
	한강이야기전시관 이용 안내	46

알아 두면 좋은 우리나라의 시대

선사시대 약 5천 년 전



삼국시대 기원후 3세기~676년



고려시대 910년~1392년



조선시대 1392년~19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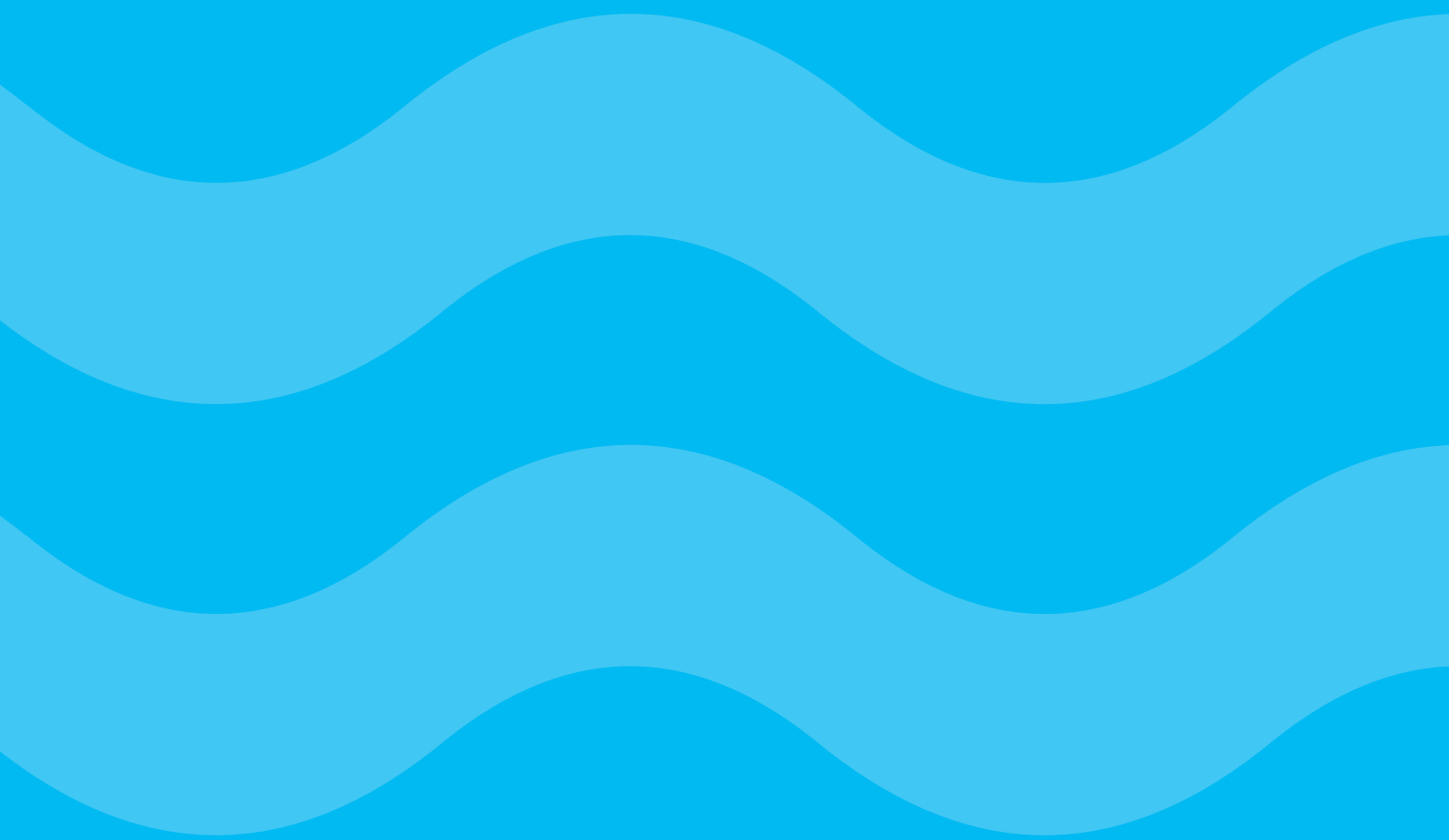
근현대 1800년대 후반~



**한강,
얼마나 알고 있나요?**



한강은 5천 년 전부터 여러 이름으로 불려 왔습니다.
한강의 옛 이름은 무엇인지,
지금 한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시다.



아리수

阿 利 水

언덕 아

이로울 리

물 수

욱리하

郁 里 河

성할 욱

마을 리

물 하

열수

洌 水

맑을 열

물 수

경강

京 江

서울 경

강 강

한강의 이름

한강은 아주 옛날부터 우리 땅에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한강을 지금과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삼국시대에는 우리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세 나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중 고구려는 한강을 ‘아리수’,
백제는 ‘옥리하’라고 불렀습니다.

고려시대에는 한강을 ‘열수’,
조선시대에는 ‘경강’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의 한강이라는 이름은 ‘한가람’에서 나온 말입니다.
‘한’은 크다는 뜻이고, ‘가람’은 옛날에 강을 부르던 말입니다.
그래서 한강은 ‘크고 넓은 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강의 다리

한강에는 모두 31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2024년 12월 1일 기준

서울 안에는 22개의 다리가 있고,

서울 밖에는 4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서울 안과 밖을 연결하는 다리는 5개입니다.

한강에는 흥미로운 다리들이 많습니다.

‘한강철교’는 한강에서 가장 처음 만들어진 다리입니다.

‘마곡대교’는 한강에서 가장 긴 다리입니다.

‘한남대교’에는 자동차가 가장 많이 다닙니다.

‘마포대교’는 자전거 길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자전거로 건너기 좋습니다.

그 외에도 걷기 좋은 다리,

주변 풍경이 아름다운 다리도 있습니다.



↑ 삶

©국립생태원



↑ 수달

©국립생태원

한강의 공원

한강에는 11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1년에 약 5천만 명의 사람들이 한강공원에 갑니다.

한강공원에서는 계절에 따라 바뀌는 자연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강공원에서 운동도 하고, 축제도 열고,

친구들도 만나고, 산책을 하기도 합니다.

한강공원에는 동물과 식물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삶과 수달 같은 멸종 위기 동물*도 있습니다.

멸종 위기 동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은 한강공원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 멸종 위기 동물 : 숫자가 너무 줄어들어 지구에서 사라질 위험에 처한 동물.

한강과 사람 이야기



농사를 짓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편리한
한강 주변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어떤 사람들이 한강 주변에 살았을까요?
또 사람들의 생활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 빗살무늬토기

©국립중앙박물관

선사시대의 한강

선사시대 사람들은 돌과 나무로 도구를 만들어,
나무 열매를 따 먹고 동물을 잡아먹었습니다.
물과 먹을거리가 많은 한강 주변은
물고기를 잡고, 농사를 지으며 모여 살기에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한강 주변 100곳이 넘는 지역에서
선사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서울 암사동과 하남 미사리에서는
빗살무늬토기라는 밑이 뾰족한 형태의 그릇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 고구려의 유물 - 연꽃무늬 수막새(지붕 기와)

©국립중앙박물관



↑ 백제의 유물 - 세 발 접시

©국립중앙박물관

삼국시대의 한강 백제와 고구려

삼국시대에 한강은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백제, 고구려, 신라 세 나라는

한강 지역을 갖기 위해 서로 싸웠습니다.

가장 먼저 한강을 가진 나라는 백제였습니다.

백제는 한강 주변에 성을 쌓고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475년,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면서

백제의 성을 빼앗고 한강에서 백제를 몰아냈습니다.

이후 고구려는 100년 동안 한강 지역을 지배했고,

그때의 흔적들이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

©국립중앙박물관

삼국시대의 한강 신라

고구려가 한강 지역을 지배하는 동안
신라도 한강 지역을 빼앗을 기회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551년, 신라의 진흥왕은 백제, 가야의 군사들과
힘을 합쳐 고구려를 공격하여 한강 지역을 빼앗았습니다.

이후 신라의 진흥왕은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라는
비석을 세워서 한강 지역이 신라의 땅이 되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신라는 한강 지역에서 나라의 힘을 키운 다음
고구려와 백제를 무너뜨리고
신라, 고구려, 백제를 하나의 나라로 통일했습니다.



↑ 마포나루의 예전 모습

©용산역사박물관

조선시대의 한강 나루터와 포구

나루터와 포구는 모두 물길과 땅을 이어 주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나루터나 포구에서 배를 타고
강이나 바다를 건너 여행을 가거나,
나루터나 포구에 배를 대고 물건을 실어 나르곤 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나루터와 포구에서
적이 강을 건너 오지 못하게 막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한강 물길을 이용하기 편리한
나루터와 포구 주변에 모여 살기 시작했고,
점점 여러 마을이 생겨났습니다.



소금 장수



새우젓 장수



옹기(항아리) 장수



생선 장수

조선시대의 한강 경강의 상인들

조선시대에는 한강의 나루터와 포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물건을 사고팔았습니다.

그곳에는 새우젓, 소금, 생선, 향아리, 쌀 같은
다양한 물건을 파는 장수(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장수들을 ‘경강상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중 새우젓과 소금으로 유명했던
‘마포나루’라는 나루터에서는
지금도 매년 ‘새우젓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 《경교명승첩》 33점 중 《행호관어》

©간송미술관

조선시대의 한강 경교명승첩

조선시대의 많은 화가들이 한강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중에서도 겸재 정선은 한강을 그린 작품을
많이 남긴 화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겸재 정선의 《경교명승첩》은 서울과 한강 주변의
풍경을 담은 그림 33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행호관어》라는 그림에는 물고기를 잡는 배가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예전에도 한강에 물고기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교명승첩》은 한강의 모습을 자세히 담고 있어서,
한강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 한강철교의 예전 모습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근현대의 한강

6·25 전쟁이 끝난 1950년대부터 서울은 빠르게 발전하였고,
한강 주변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넜지만,
점점 그 자리에 다리가 생기며
사람들은 배 대신 기차와 자동차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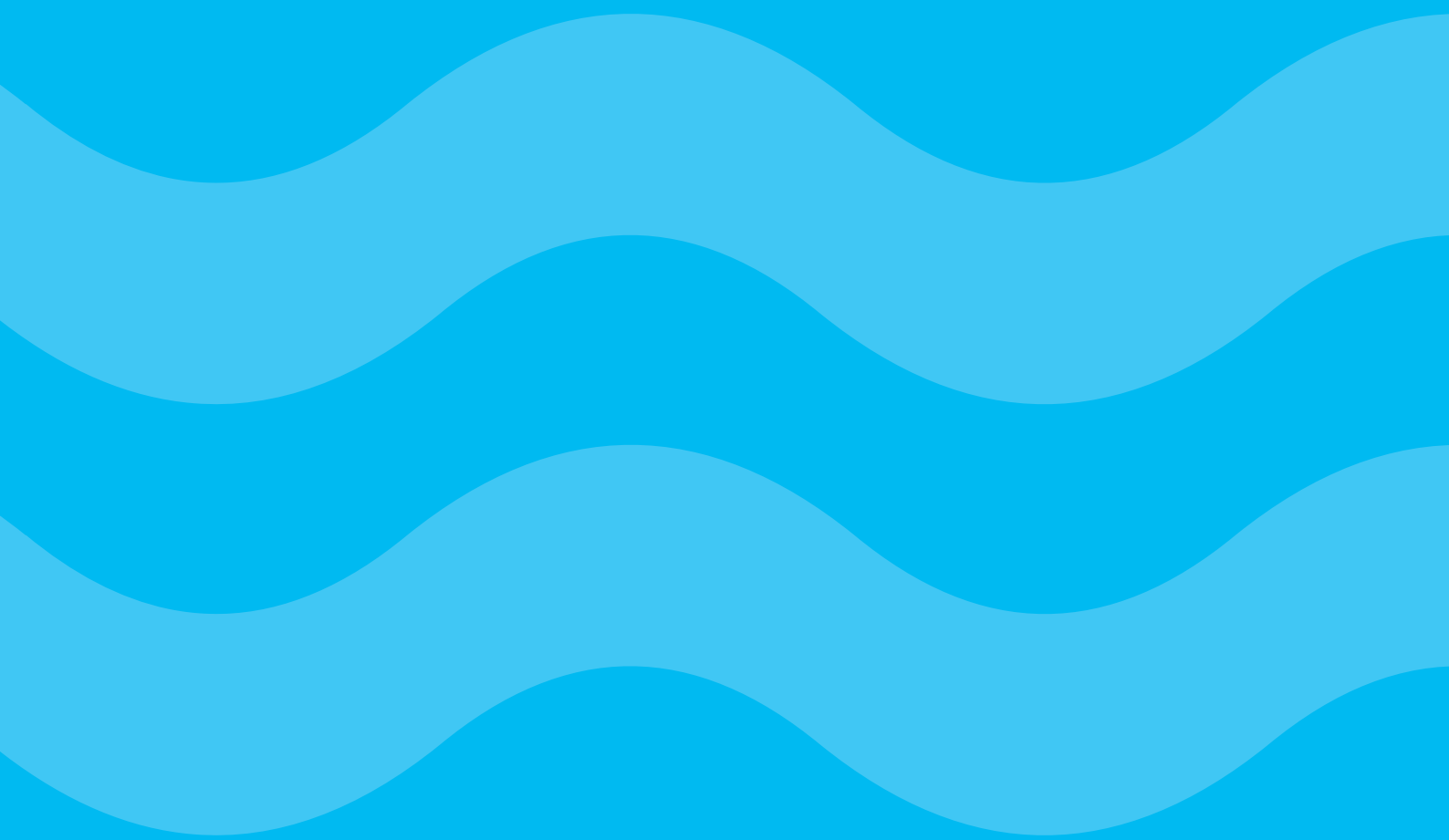
또한,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준비하며
한강 주변에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넓은 도로와 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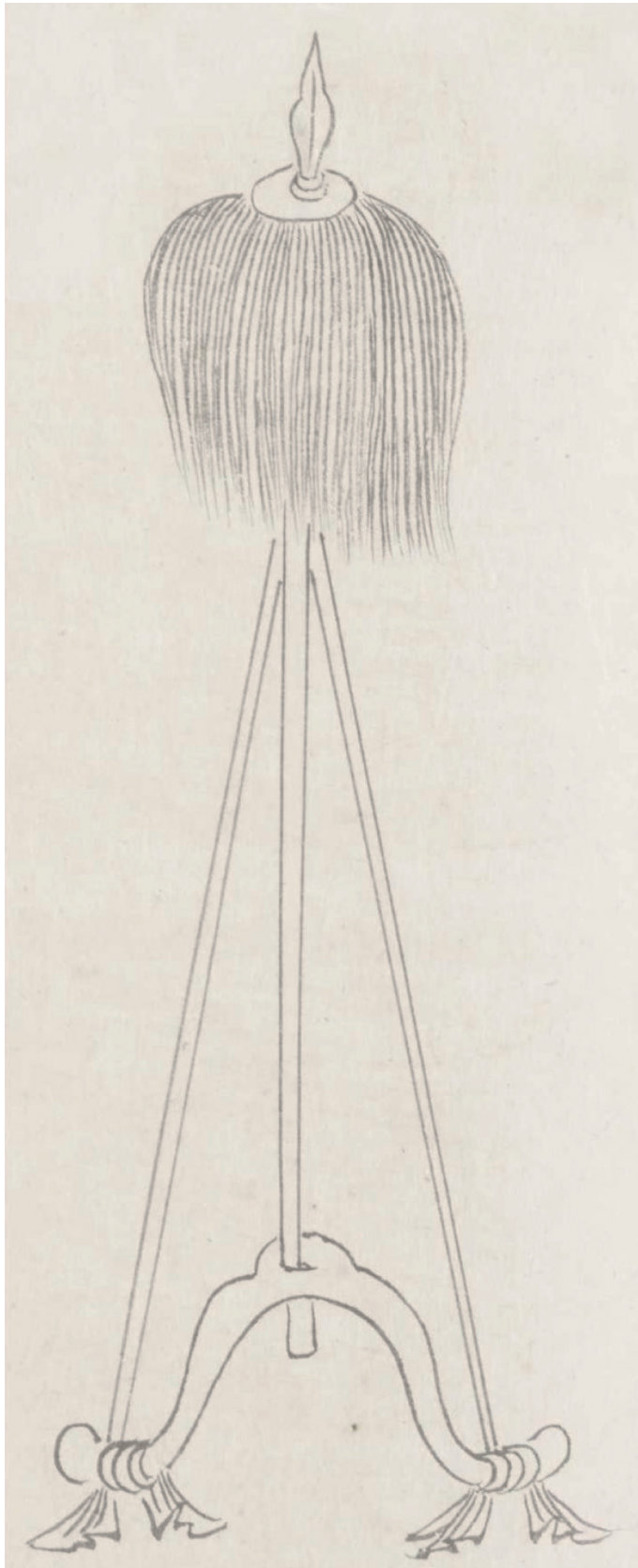
이때부터 한강은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문화생활을 즐기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한강의 섬 이야기



오랜 시간 동안 한강의 물줄기가 변하면서,
한강의 섬들은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했습니다.
한강 주변의 섬들에는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 둑기

©세종실록오례

뚝섬 독제를 지내는 섬

조선시대에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뚝섬에서 독기*를 세우고 독제**라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뚝섬이라는 이름은 ‘독제를 지내는 섬’이라는 뜻입니다.

뚝섬은 실제 섬은 아니지만, 섬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가 많이 내리면 뚝섬 주변에 물이 차올라 섬처럼 보여서,
‘섬’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 독기 : 창(길고 끝이 뾰족한 무기)에 소의 깃털을 꽂아 만든 깃발.

** 독제 :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이 무사히 돌아오고, 이기게 해 달라고 비는 제사.

눈동자개



피라미



가시납지리



누치



참중고기



©서울의공원

잠실섬 물고기 길이 있는 섬

잠실섬은 잠실의 옛날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비가 많이 내리면 한강 물이 넘쳐서
잠실섬이 잠실섬, 부리도, 무동도로 쪼개졌습니다.
물이 마르면 다시 땅과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1970년대에 잠실섬은 완전히 땅과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잠실섬 주변의 물길을 막아서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잠실에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이어 주는 ‘잠실대교’가 생겼습니다.
잠실대교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라면,
잠실대교 아래에는 물고기 길인 ‘잠실어도’가 있습니다.
물고기들은 이 길을 따라 거센 물살을 피해
하천이나 바다로 이동합니다.



↑ 1861년에 만든 『대동여지도』 속 여의도와 밤섬.
두 지역이 거의 하나처럼 그려져 있다.

©서울역사아카이브

여의도 너의 섬, 나의 섬

여의도는 한강의 모래가 오랜 시간 쌓여 만들어진 섬입니다.
옛날에는 밤섬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여의도는 비가 많이 내리면 산봉우리만 남기고
물에 잠겨서 산봉우리가 작은 섬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여의도를 ‘나의 섬’, ‘너의 섬’ 하며
장난스럽게 불렀고, 이 말을 한자로 바꾸어 ‘여의도’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1960년대에 한강 주변을 개발하면서
여의도에 국회의사당이 생겼고, 금융 회사들도 많아졌습니다.
이제 여의도는 정치와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서울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 밤섬의 예전 모습

©서울기록원



↑ 밤섬의 현재 모습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밤섬 밤알을 닮은 섬

밤섬에 살던 사람들은
한강의 물길을 이용해 배를 만들고,
배에 사람을 태워 주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1968년, 여의도 주변의 물길을 넓히기 위해
사람들은 밤섬을 폭발시켜서 부수었습니다.
그때 밤섬에 살던 주민 443명은 마포구 와우산으로
옮겨 갔습니다.

그 후, 밤섬이 부서진 자리에 다시 흙이 쌓여서
나무와 풀이 자라났습니다. 사람이 없어진 밤섬에는
다양한 동물, 식물이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철새*가 오고 가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 철새 :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새.



↑ 난지도의 현재 모습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난지도 난꽃과 지초가 많은 섬

난지도는 난꽃과 지초라는 꽃이 많이 피기로 유명합니다.

계절마다 다양한 꽃들이 피어나서

예전에는 ‘꽃섬’이라고 불렸습니다.

풍경이 아름다웠던 난지도는 1950~1960년대에는

데이트 장소와 영화 촬영지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1978년, 난지도는 서울의 쓰레기를 쌓아 두는 곳이 되었고,

그 후 15년 동안 2개의 커다란 쓰레기 산이 생겼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난지도의 쓰레기 산을 자연공원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난지도의 쓰레기들은 흙으로 덮였고,

그 자리에 풀과 나무를 심어

지금은 아름다운 자연공원이 되었습니다.



↑ 노들섬의 현재 모습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노들섬 백로가 놀던 섬

노들섬은 원래 서울 용산과 이어진 넓은 모래밭이었습니다.

1917년, 한강에 다리를 만들면서
모래밭에 돌을 쌓아 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섬을 ‘중지도’라고 불렀습니다.

1950년대까지 중지도는 용산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1968년, 한강을 개발하면서
중지도의 모래를 퍼서 도로를 만들었고,
모래가 사라진 자리에 강물이 들어왔습니다.

이때부터 중지도는 땅과 떨어진 완전한 섬이 되었고
1995년, ‘노들섬’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노들섬은 섬 전체가 문화공간이 되어,
1년 내내 다양한 공연과 행사가 열립니다.



↑ 겸재 정선이 그린 《양천팔경첩》 속 선유봉

©개인소장

선유도 신선*이 놀던 섬

선유도는 예전에는 선유봉이라고 불렸습니다.
선유봉에는 40미터 정도 되는 봉우리가 있었는데,
높이 솟은 봉우리와 한강의 풍경이 무척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온 손님이나 우리나라의 선비들도
그 풍경을 보기 위해 선유봉을 즐겨 찾았습니다.

하지만 1925년에 우리나라에 비가 많이 내려서
한강 물이 넘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강 물이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유봉의 봉우리를 조각내서 한강 주변에 쌓았습니다.

그 후에도 사람들은 선유봉의 봉우리를 깎아서
한강 주변을 개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결국 선유도는 봉우리 없는 섬이 되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자주 찾는 선유도 공원이 되었습니다.

* 신선 : 상상 속 인물로, 신처럼 특별한 힘을 가진 사람.

한강이야기전시관 이용 안내

주소 서울시 광진구 강변북로 2202

운영 시간 화, 수, 목, 금
오전 9시~오후 6시

토, 일
오전 9시~오후 8시

쉬는 날 월요일,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이용 문의 02-3780-0517

한강이야기전시관 홈페이지 바로 가기



휴대폰으로 QR(큐알)코드를
찍어 보세요.



발행처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한강문화관광과

발행일 2024.12.

총괄 이재림

제작 소소한소통



본 저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한눈에 보는 한강 이야기

한강, 이야기가 가득한 그곳으로



본 저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